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고구려대학교 아동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Chang-Seek Lee*, Ji-Young Park**, Ha-Young Jang***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Dept. of Child and Elderly Welfare**,
Dept. of Lifelong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1274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D시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은 성, 학교급, 가족 형태, 가족 소득 수준,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행복감은 성별, 학교급, 가족 소득 수준,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모두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초, 중학생인 경우 부분매개하였고, 고등학생인 경우 완전매개하였다. 끝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행복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자아존중감, 행복감, 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1274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D city of Korea from April to May in 2016.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family type, income level,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ir happi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income level, academic achievement. Seco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ir happi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ird, self-esteem was partially mediated for elementary, middle school students, but perfectly mediated for high school students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ents with lower happiness du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Received 9 November 2016, Revised 12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Ha-Young Jang
(Dept. of Lifelong Education)
Email: besof@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1].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 전체의 8.5%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2]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11.1%, 중학생은 10.0%, 고등학생은 4.2%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높았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0년 이후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3]. 하지만, 2010년 이후엔 대략 10% 내외로 정체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37개국 중 학교 폭력 발생률이 9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4]. 더군다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다양성 과 복잡성은 더해가고 있다[5].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학교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교결석, 학교생활 불안, 집단 활동의 기피 등 심리와 행동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행복감이란 시대와 종교,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7] 일반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8]. 2010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71.2%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9]. 이러한 비율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나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국가인 중국은 92.3%, 일본은 75.7%로,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그 이유로 학습 스트레스를 지적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10,11,12].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은 종교가 있고 자존감이 높을수록[13], 건강이 양호하고, 부모 및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성별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측면과 학교생활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16]. 현재까지 학교생활 측면에서 다량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일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이 외부환경과 상응한다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점 관점에서 보면 [17],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한 요인으로 교우관계에서의 학교폭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18]. 한편,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대체로 학생들의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자살생각[19], 자살 시도, 우울감 등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깊었고[20], 이는 다시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21]. 또한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도는 하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2].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외로움, 무력감,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겪게 되는데[23] 이는 심리적 특성 중 낮은 자아존중감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에 대하여 박종효[25]는 학교폭력은 우선 피해 학생의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는데, 주위 친구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학생은 고립되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외로움은 다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은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밝혀졌고[26]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자존감 형성이 불가능 것으로 밝혀졌다[27]. 한편, 스트레스에 주목한 연구도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28] 이러한 가중된 스트레스는 다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2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학교폭력은 다양한 경로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끝으로 청소년 개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7].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정서, 부적 정서로 대별되며 개인이 느끼는 유쾌한 정서 상태 즉,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와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말한다[30]. 유쾌한 정서에는 만족감, 즐거움, 고양감, 환희,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포함된다[3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한우[32]는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였으며, 한편상 등[33]도 행복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은희[34]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대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있어서 직접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고 매개효과, 특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청소년 일부 집단에 한정하였던 연구가 대부분이며 초, 중, 고등학생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 중, 고등학생 세 집단으로 나누어, 학교폭력 피해가 학생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각 집단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해지고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 문제와 열악한 행복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D시의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반만을 표집하여 전수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고, 조사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27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62명(45.3%), 여학생이 678명(53.2%)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교급 분포는 초등학생이 263명(21.7%), 중학생이 467명(38.6%), 고등학생이 480명(39.7%)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9-19세였으며 평균 14.1세(SD=2.3)였다. 한편, 가족형태는 양부모가 1,038명(83.4%), 편부모가 127명(10.2%), 조손가족 및 기타가 79명(6.4%)으로 양부모 형태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의 소득수준은 ‘낮음’이 141명(11.4%), ‘보통’이 662명(53.5%), ‘높음’이 435명(35.1%)으로 ‘보통’이 가장 많았고 ‘높음’, ‘낮음’ 순이었다. 끝으로 학업성취도를 보면 ‘상’은 261명(21.0%), ‘중’은 677명(54.6%), ‘하’는 302명(24.4%)으로 ‘중’이 가장 많았고 ‘하’, ‘상’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는 조주영[35]의 연구에 사용한 척도 중 피해경험 7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9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Rosenberg[3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6으로 나타났다.

2.2.3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은국 등[37]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측면(성취, 건강, 성격 등), 관계적 측면(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과,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을 묻는 긍정적 문항(PE) 3문항, 부정적 문항(NE)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총 7점 Likert척도이다. 만족도 3문항과 긍정적 문항 3문항을 합산한 후 부정

적 문항 3문항을 빼어 총점으로 계산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2.4 일반적 특성

학생의 성별, 학교급, 연령, 가족형태, 가족의 소득수준, 그리고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설문지를 코딩한 후 SPSS Win.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정 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급에 따른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38]의 분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s test[39]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초, 중, 고등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3.059, 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F=3.219, p<.05$),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하'인 학생이 '중', '상'인 학생보다($F=6.362, p<.01$)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t=2.006, p<.05$),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F=32.015, p<.001$)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가족형태가 '양부모', '조손가족 및 기타'인 학생들이 '편부모'보다($F=7.776, p<.001$) 높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상', '중', '하' 순으로 나타났으며($F=36.909, p<.001$), 학업성취도 또한 '상', '중', '하' 순이었다($F=109.138, p<.001$).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t=4.807,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상', '중', '하' 순으로 나타났고($F=33.240, p<.001$), 학업성취도 또한 '상', '중', '하' 순으로 나타났다($F=23.504, p<.001$).

3.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는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1$)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1$).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가장 높은 상관($r=.612, P<.01$)을 띄었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r=-.249, p<.01$), 학교폭력 피

<Table 1>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N	Mean (SD)	t, F, Duncan	N	Mean (SD)	t, F, Duncan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560	1.20(.39)	3.059**	561	3.61(.63)	2.006*	521	22.27(10.15)	4.807***
	Female	674	1.14(.31)		678	3.54(.66)		632	19.25(10.96)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263	1.16(.30)	3.219*	263	3.84(.62)	32.015***	A 232	26.81(9.45)	77.619***
	Middle school	465	1.20(.37)		A 466	3.55(.65)		B 436	21.21(10.36)	
	High school	477	1.15(.34)		B 480	3.46(.62)		B 457	16.89(9.83)	
Family type	Intact parent	1032	1.17(.35)	1.450	1037	3.60(.64)	7.776***	A 971	20.70(10.78)	.648
	Single parent	127	1.17(.31)		127	3.36(.63)		B 119	19.69(9.87)	
	Grandparent rising, etc	79	1.24(.46)		79	3.56(.67)		A 68	21.38(11.34)	
Income level	Low	140	1.24(.47)	2.733	141	3.27(.67)	36.909***	A 131	14.79(10.40)	33.240***
	Middle	659	1.17(.33)		661	3.52(.61)		B 620	20.24(10.12)	
	High	433	1.16(.34)		435	3.75(.65)		C 403	23.22(10.97)	
Academic achievement	Low	298	1.21(.38)	6.362**	302	3.23(.60)	109.138***	A 279	17.30(10.25)	23.504***
	Middle	675	1.19(.37)		B 676	3.57(.59)		B 628	21.16(10.44)	
	High	261	1.11(.24)		B 261	3.98(.62)		C 245	23.45(11.03)	

*p<.05, **p<.01, ***p<.001

해와 행복감($r=-.214, p<.01$) 순이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1.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1		
2. Self-esteem	-.249**	1	
3. Happiness	-.214**	.612**	1
Mean	1.17	3.57	20.66
(SD)	(.35)	(.64)	(10.7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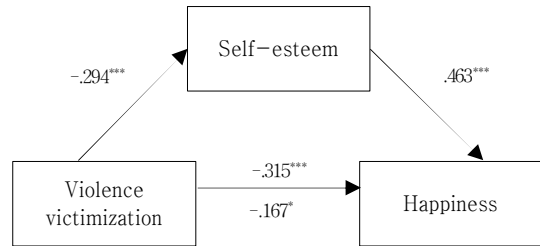
3.3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3.3.1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4.76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25.344, p<.001$). 3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47.264, p<.001$), 3단계 학교폭력 피해의 표준화 계수(β) 절대값이 2단계의 $-.315$ 에서 $-.167$ 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4.36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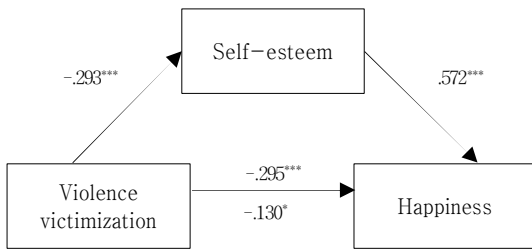
3.3.2 중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17.19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9.958, p<.01$). 3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125.778, p<.001$), 3단계 학교폭력 피해의 표준화 계수(β) 절대값이 2단계의 $-.295$ 에서 $-.130$ 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4.034,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able 3> The results of heirarchical regressions by school levels

	IV	DV	B	SE	β	R ²	F	Sobel's test
Elementary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605	.122	-.294***	.087	24.765***	-4.360***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9.520	1.891	-.315***	.099	25.344***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5.056 7.204	1.772 .912	-.167* .463***	.292	47.264***	
Middl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517	.079	-.293***	.086	43.326***	-6.057***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8.146	1.269	-.295***	.087	41.188***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3.583 9.004	1.086 .622	-.130* .572***	.388	136.041***	
High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342	.082	-.187***	.035	17.195***	-4.034***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4.379	1.388	-.147**	.022	9.958**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1.320 9.557	1.143 .622	-.044 .589***	.358	125.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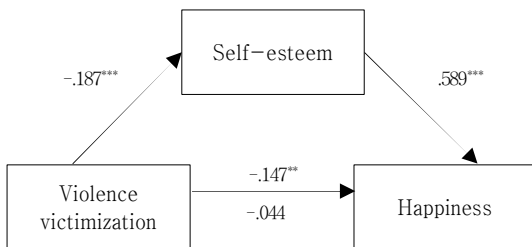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3.3.3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4.76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25.344, p<.001$). 3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47.264, p<.001$), 학교폭력 피해의 표준화 계수(β) 절댓값은 2단계에서는 $-.315(p<.01)$ 로 유의하였으나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249$).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4.36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3]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40].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폭력이 더 높은 이유로 고대곤 등[41]은 낮은 현실 인식과 자기조절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즉, 불완전한 현실 인식과 자기조절능력은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가 다양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양부모, 조손 가족이 편부모가족보다,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42,43].

둘째,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다른 선행연구와 대부분 일치하였다[10]. 따라서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객관적 특성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학교급,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는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스포츠활동, 여행, 토래상담 등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행복감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칭찬활동, 자신의 장점 찾기 활동과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회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부분매개효과를, 고등학생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피해로 저하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자아존중감 회복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발달 과업인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박승민 등[44]

에 의하면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위 환경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의 불안정한 매개 즉, 부분매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안정한 자아존중감을 지닌 고등학생에게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초, 중, 고등학생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차이를 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발달단계상 대학생도 비슷한 집단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대학생 집단까지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가 다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 피해로 낮아진 행복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각 집단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Law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www.law.go.kr, 2015.

[2] J. Y. Moon, "A Single case study on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on an abused child's depress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5.

[3] J. H. Park, "Prevalence and survey issues of school violenc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eachers and Education, Vol. 30, No. 1, pp.17-38, 2012.

[4] M. Akiba, & G. K. LeTendre, & D. P. Baker, & G. Brian, "Student victimization: National and school system effects on school violence in 37 n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9, No. 4, pp.829-854, 2002.

[5] K. S. Lee, "Development of expressive activity program for prevention of student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19, No.3 , pp.55-65, 2014.

[6] Baker and Siryk.(1984).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Vol. 4, pp. 79-100.

[7] M. O. Choi, "The study of comparing the factors affecting male and female happiness - focusing on the city of Bus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7, No. 2, pp.19-40, 2011.

[8] R. Veenhoven,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7, pp.1-46, 1996.

[9] Youth Value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 2011.

[10] S. Y. Park, & H. G. Le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1, No. 2, pp.73-84, 2013.

[11] H. J. Lee, & K. S. Kim, & K. H. Kim, & G. W. Nam, & K. W. Min, & S. S. Lee, & C. H. Jeong, & S. Y. Park,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moking behavior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5, pp. 665-702, 2013.

[12] J. I. Kim, & B. R. Choi, "Convergence study on emotional labor, stress respons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ll-cente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139-146, 2015.

[13] H. Y. Koo, & H. S. Park, & E. H. Jang,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 1, pp.151-158, 2006.

[14] H. W. Hwang, "A research on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1-26, 2011.

[15] S. D. Han, "A study on the influence, which has affect on the happiness, of self elasticity and the social support felt by children",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Vol. 1, No. 1, pp. 111-134, 2012.

- [16] S. W. Kwon, & E. H. Lee, & I. H. Song,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2, pp.39-72, 2012.
- [17]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18] E. M. Sung, & G.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4, pp.177-202, 2013.
- [19] A. B. Klomek, & F. Marrocco, & M. Kleinman, & I. S. Schonfeld, & M. S. Gould,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8, pp.166-180, 2008.
- [20] C. Mills, & S. Guerin, & F. Lynch, & I. Daly, & C. Fitzpatrick,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behaviour in Irish adolescents",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Vol. 21, pp.112-116, 2004.
- [21] E. Roland, "Bullying,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Educational Research*, Vol. 44, pp.55-67, 2002.
- [22] G. M. Kim, & Y. S. Yum, & Y. M. Park,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students' happiness and suicidal impuls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9, pp.236-247, 2013.
- [23] M. S. Yoon, & H. J. Cho, "Effects of violence experience type on adolescent's depression, alcohol use",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 No. 29, pp.295-329, 2008.
- [24] C. J. Lee, & G. J. Gwak,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3, No. 1, pp.65-80, 2000.
- [25] J. H. Park, "An understanding of school bullying (Wangtta): developmental trend and relation to mental health",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1, pp.247-272, 2007.
- [26] S. O. Shin, & J. Park, "Converged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271-277, 2015.
- [27] S. I. Han, & H. M. Yoon, "Difference i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assertive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by bullying groups", *Journal of Human Science*, Vol. 14, No. 1 pp.31-46, 2010.
- [28] G. K. Natvig, & G. Albrektsen, & U. Qvarnstrom,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5, pp.561-575, 2001.
- [29] V. S. Baste, & J. V. Gadkari, "Study of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medical students and effect of music on perceived stress", *Indi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Vol. 58, No. 3, pp.296-299, 2014.
- [30]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pp.542-575, 1984.
- [31] Y. H. Kang, "Exploring the constru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1, No. 2, pp.219-235, 2012.
- [32] H. W. Cho, "Influence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health of the rural elderly upon life satisfaction-Centering on Sancheong-gun, Gyungsangnam-do-",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2007.
- [33] K. S. Han, & J. P. Kim, "Impact of self-esteem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 in sport for all on their psychological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No. 41, pp.521-531, 2010.
- [34] E. H. Jeon,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recognized by elderly on one's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seong University, 2008.
- [35] J. Y. Cho, & I. S. Oh,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changes in experience, and emotional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4, pp.301-323, 2014.
- [36]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7] E. K. Suh, & J. S. Koo,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1, pp.95-113, 2011.
- [3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3, 1986.
- [39] M. E. Sobel,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 [40] H. J. Je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offense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13.
- [41] D. G. Go, & K. M. Kim, "A study on actual state and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in upper cla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ccording to school year, gender and physical activity barrier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5, No. 2, pp.281-295, 2009.
- [42] Y. M. Lim,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25, No. 2, pp.147-167, 2013.
- [43] Y. H. Ju,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arned incom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44] S. M. Park, & M. C. Gang, & E. H. Kim, "Self-esteem change in adolescents: latent state-trait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7, No. 1, pp.63-84, 2015.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박 지 영(Park, Ji Young)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문학사)
- 2005년 2월 : 한서대학교(차학석사)
- 2011년 2월 : 한서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노인복지
- E-Mail : jteddy@naver.com

장 하 영(Jang, Ha Young)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과(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